

중유 5천~1만 내주부터 복송 시작

남북 경공업·지하자원 개발 2차 실무협약도 재개

북핵 2·13합의에 따라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쇄 등 초기조치를 이행하는데 맞춰 우리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중유 5만톤의 복송이 내주 시작된다.

통일부 김남식 대변인은 4일 "남북이 합의한대로 다음주 안에 중유의 첫 복송이 시작될 것"이라며 "물량은 5천~1만 사이로 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일 중유 지원에 필요한 추가 비용에 대해 국회 보고를 했고 현재 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안건으로 올려 관계부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면서 "오늘이나 내일 교추협에서 의결이 되면 중유사와 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한은 앞서 지난달 29~30일 개성에서 중유지원과 관련한 협의를 갖고 2주 이내에 중유를 실은 첫 선박을 출항시키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지막 선박의 출항을 마칠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남북 경공업·지하자원 개발 협력을 위한 남북 이행기구간 실무협약이 한 달 만에 재개된다. 통일부는 4일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을 위한 이행기구간 제2차 실무협약이 5~6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지난 달 7~8일 이행기구간

제1차 실무협약이 북한에 유상제공할 경공업 원자재의 품목별 가격에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 없이 종결된 지 1개월만에 열리는 것이다.

남북 이행기구에는 이에 따라 이번 협의에서 첫 항차 물량인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500t의 단가를 포함해 의류, 신발, 비누 등 3대 경공업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품목과 가격 협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북측은 특히 올해 받을 수 있는 원자재의 총액이 8천만 달러인 만큼 단가를 낮추고 가공이 이뤄지지 않은 품목을 받을수록 그만큼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완강한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반 협의는 지난 달 7~8일 이행기구간

구성됐다.

우리나라 해외 파병 역사상 유엔평화유지군으로는 소말리아, 서부 사하라, 앙골라, 동티모르에 이어 다섯 번째 파병이며 전투부대는 동티모르에 파병됐던 상륙수부대에 이어 두 번째다.

이들은 이스라엘 국경 북방 30km 지점에 위치한 레바논 남부 티르에서 동쪽으로 약 5km 떨어진 부르즈 앳-쉬말리 지역에 주둔하면서 헤즈볼라 세력의 무기반입 및 적대행위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부르즈 앳-쉬말리는 구릉지대로, 9천 500~1만평 규모의 주둔지에는 현재 부지 정리작업과 함께 시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동명부대의 작전 책임지역은 티르시 북쪽에서 티라나 강에 이르는 폭 7~10km 지역으로 면적은 40~50km에 이른다.



노무현 대통령이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도시 발표를 하루 앞둔 3일 저녁(한국시간 4일 오전) 과테말라시티 시내 국립극장에서 열린 제119차 IOC 총회 개막식 및 리셉션에서 경쟁국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만나 악수하며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盧는 찾아갔고 푸틴은 불렀다

■한-러 정상 IOC 위원에 승반된 득표전

盧, 1분에 한명꼴 만나 지지 호소

노무현 대통령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도시 발표를 하루 앞둔 3일 저녁(한국시간 4일 오전) 과테말라시티 시내 국립극장에서 열린 제119차 IOC 총회 개막식 및 리셉션에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참석, 60명 가까운 IOC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평창 유치를 위한 득표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관련기사 23면>

개막식은 자크 로제 IOC 위원장의 개막선언에 이어 문화공연, 야의 리셉션 순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IOC 위원, 후보도시 대표단, 조직위 초청 인사 등 5백여 명이 참석했다.

노 대통령 내외는 공연을 관람한 후 리셉션에 참석해 IOC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이날 개막식 및 리셉션 행사는 총회기간 중 공식적으로 IOC 위원들과 개별 접촉을 할 수 있는 자리가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을 최대한 활용했고, 거의 1분에 한 명꼴로 IOC 위원들을 만나 평창 지지를 당부하는 '초스피드 유세'를 벌였다.

노 대통령은 이들 IOC 위원들에게 "우리 국민은 열광적으로 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누구보다 잘 할 것이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우리 국민이 열성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러 왔다"는 취지의 담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20여 명의 IOC 위원과는 포즈를 취하면서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일부 IOC 위원은 자신이 들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로 청와대 관계자에게 노 대통령과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고, 기념촬영을 자청한 경우도 많았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리셉션장을 돌아다니며 IOC 위원들에게 직접 '다가가' 득표전을 펼친 노 대통령과 달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리셉션장 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러시아 소치 유치위원회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아온 IOC 위원들을 응대하고 인사를 하는 방식으로 '기다리는' 득표전을 전개해 대조를 보였다.

한편 유치도시 결과 발표는 4일 오후 5시30분(한국시간 5일 오전 8시30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키니 왁스·칠 필 등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OED) 인터넷판에 '비키니 왁스'(bikini wax)와 '칠 필'(chill pill) 등 최신 유행 신조어와 속어가 대거 추가됐다.

'칠 필'은 진정제를 뜻하는 속어이며, '비키니 왁스'는 비키니 수영복을 입을 때 체모가 빠져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제거를 의미하는 신조어이다.

또 뉴욕주 브루클린 시민을 뜻하는 '브루클리나이트'(brooklynite), 등 2천690여개의 단어가 추가됐다. /뉴욕=연합뉴스

'동명부대' 선발대 레바논 출국

전투부대로는 두번째 파병

레바논에서 유엔평화유지군(UNIFIL)의 일원으로 임무를 수행할 한국군 '동명(東明)부대' 선발대가 4일 오후 장도에 올랐다.

군 관계자는 "동명부대 선발대 60여 명이 오늘 오후 민항기를 통해 레바논 현지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선발대는 현지에서 이미 선박을 통해 해상으로 운송중인 동명부대의 장비와 물자(장갑차 등 차량 54대, 컨테이너 32개동)를 인수하는 한편, 오는 19일 출발하는 본대의 부대 전개를 준비할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경기도 광주 특전교육단에서 창설된 동명부대는 특전사 장병을 주축으로 한 보병과 이를 지원하는 공병, 통신, 의무, 수송, 정비 등 총 350명(여군 5명 포함)으로

구성됐다.

우리나라 해외 파병 역사상 유엔평화유지군으로는 소말리아, 서부 사하라, 앙골라, 동티모르에 이어 다섯 번째 파병이며 전투부대는 동티모르에 파병됐던 상륙수부대에 이어 두 번째다.

이들은 이스라엘 국경 북방 30km 지점에 위치한 레바논 남부 티르에서 동쪽으로 약 5km 떨어진 부르즈 앳-쉬말리 지역에 주둔하면서 헤즈볼라 세력의 무기반입 및 적대행위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부르즈 앳-쉬말리는 구릉지대로, 9천 500~1만평 규모의 주둔지에는 현재 부지 정리작업과 함께 시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동명부대의 작전 책임지역은 티르시 북쪽에서 티라나 강에 이르는 폭 7~10km 지역으로 면적은 40~50km에 이른다. /연합뉴스

일 첫 여성 방위상 의장대 사열



일본 첫 여성 방위상에 취임한 TV 앵커 출신 고이케 유리코(54) 전 총리실 국가안보보좌관이 4일 도쿄 방위성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쟁국 3국 정상 '조우'

○노 대통령은 이날 개막식에서 경쟁국가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오스트리아의 알프레드 구렌바워 총리와 처음으로 '조우'했다.

러시아는 행사장 첫 번째 열, 오스트리아가 그 다음 열, 한국이 세 번째 열로 자리 배치됐다. 노 대통령은 바로 앞줄에 있던 구렌바워 총리와는 가볍게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나눴고, 좌석 거리가 다소 떨어진 푸틴 대통령과는 복도 통로로 나와서 서로 인사를 나눴다.

양 정상은 가볍게 포옹하듯이 인사를 교환했고, 노 대통령이 "소치는 준비가 잘 되고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푸

틴 대통령은 "아주 준비가 잘되고 있다.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참 반갑다"고 화답했다고 친화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도시를 발표하는 '은명의 날'인 4일 오후(서울시간 5일 새벽) 웨스틴 카미노 레알 호텔에 샴페인을 열어 축하하는 평창 프레젠테이션(PT)에 참석해 2분간 평창 지지연설을 한다.

○노 대통령은 개막식 후 이어진 리셉션에서 IOC 위원들을 상대로 활발한 득표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북한의 장웅 IOC 위원과도 만났다.

北 장웅 위원 "평창 낙관"

리셉션장을 돌아다니며 IOC 위원들과 만나 노 대통령은 장 위원을 만나 악수를 건넸고, 장 위원은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장 위원은 일찌감치 평창 지지를 선언했고, 지난 2일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기자들을 만나 "평창이 2014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면 이미 발표한 대로 남북한 단일팀이 성사될 것"이라고 평창 유치를 힘 보태기도 했다. /과테말라=연합뉴스

盧, PT서 2분간 지지연설

이날 연설은 유치도시 발표를 불과 4시간여 앞두고 투표권이 있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정상' 득표활동의 피날레를 장식할 전망이다.

'한국은 짝퉁 수출국' 오명

日 세관 적발 가짜 2위

일본에서 적발된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가운데 한국산이 중국산 못지 않게 많아 한국이 '짝퉁 수출국'이란 오명을 벗으려면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코트라(KOTRA)는 일본 세관 자료를 분석해 4일 발표한 '일본의 지적재산 강화 전략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작년 일본 세관에서 적발된 전체 지적재산 침해 물품 97만9천224점 가운데 39.2%에 해당하는 38만4천173점이 한국에서 수출됐다고 4일 밝혔다.

한국산 '짝퉁'은 적발건수도 8천720건으로 전체(1만9천591건)의 44.5%를 차지해 한국은 물품 수와 건수 모두 2위를 차지해 '짝퉁 수출국'의 오명을 유지했다.

중국도 물품 수로는 46.2%, 적발 건수로는 48.2%를 각각 차지해 '짝퉁 대국'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일본에서 적발되는 지적재산 위반 사례 가운데 90% 안팎은 한국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 수출품의 일본 지적재산 침해는 2002년 5천334건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6.4%(건수 기준)에 달했으나 이후 중국의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해 상대적인 비중은 낮아졌다. /연합뉴스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강도와 사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희망을, 성인에게는 개인의 정서적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활력을 주는 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봉사단체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모/집/대/상※

- 유치원, 초·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마술에 관심있는 초·중·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 비즈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 초·중등생 개인증독치로 및 발표력 향상
- 초·중등 특기적성 미술교사로 활용하실 분(취업추천)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특강 개설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큐 향상 및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IQ(지능)개척수준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기간 : 주1회 8주 2개월
★교육비 : 무료(미술도구비 별도, 개인소지)
★교육장소 : 롯데백화점점 제일B/D 3층
★접수방법 : 선착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인솔)

○신청한 1일 미술교실체험 유치원, 초·중등학생, 태권도장, 각·예능학원, 오직종생, 미술 실용공예, 어린이 관련행사, 동문화, 교회행사, 어우회, 어린이 행사라도 미술사가 신비하고 재미있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526-2500

제1회 경찰청인종 공인자격. 10월 14일 확정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란 도로상에 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정 부기관이나 사고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의뢰를 받아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교통사고조사 전문직을 말한다. WTO가 압국 조 교통사고와 사망사고 각각 1.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있는 중무는 탐사시간 단축을 결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선진교통사고조사 부활을 선도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

철감정사 등으로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매년 수 천명 이상의 수요가 예상된다. 전문가는 2~5년 이내에 최소한 8,000원~40,000원 이상으로 예측되며 신규 고용강화에 대해 업계와 당국의 관심은 매우 크다. (원고사고보험 약21만건, 사상자 약347명, 이의신청률평균 매년 수천건씩 증가, 이상 2005년 경찰청 발표)

사립교육으로는 교통관련분야 등

마무리 적중 문제풀이 특강 실시(광주)

법적 공인력 부여, 조사 자료증거 채택,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취업가능

원오국 국가원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미국 등 OECD71개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가 정착되어 조사전문가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하여도 무비하게 하거나 사고현장에 도착하면 주·교관의 대환수수로 는 본인 전문분야로 사제명칭까지 한순간에 획득하여, 교수직 전문적으로 인정되기 매우 높다.

시행령의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의 주요 직능분야로는 도로교통사고 관련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공무원직 직역이 나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기자, 사

회복과 권익회복 및 업무, 전 과목 평균 60이내 합격이고,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학력·경력과 무관하다. 특히, 원원사정에 미정인 수험생에게 적용되는 상태에서 응시자를 위한 교육의 안내자료와 특별교육까지 준비해 왔으며, 국가공인 제1회에는 시험특성까지 감안하면 시험 준비에 유쾌하게 응대할 수 있다.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가 탄생한 점이다.

상담문의/(062)528-7788

- 자격인증기관: 경찰청
- 시험주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자료제공: 교통사고감정교육원

국비지원수강생모집

최고의 교수진 직강! 실무중심의 취업이 가장 빠른 교육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모집과정
▶공인중개사 2개월~5개월: 7/2~8/31 시험일: 10월28일
▶주택관리사 2개월~5개월: 7/2~8/31 시험일: 10월21일
▶주택관리사(회계)전문 주택관리사(회계) 7/7~8/1
●모집대상
▶혼인중 또는 혼인후 1월 이내에 이혼할 예정인 분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회사에 근무 중인 분 40세 이상인 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분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기타사항
▶고용보험가입 직장인 시험장 정회원 모집
▶수료후 100~80% 월급
●접수
▶수강장지 : 훈련생담당 훈련수강신청서 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수입시간 : 1년(1회) / 화목 19:00~21:00(기초)

한빛직업전문학교

동부경찰서 옆 ☎224-4560, 232-1088

= 여름 방학을 뜻깊게-올하반기 전남교육행정직 합격 가장 용이 =

7.9 공무원 대특강

행정직	교무직	세무직	관공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호직	특수직	산공직	소방직	토목직	건축직
-----	-----	-----	-----	-----	-----	-----	-----	-----	-----	-----	-----	-----

시행내역: ※전남행정직: 10월 13일 7급 23명 9급 193명 확정
※전남교육행정직: 올하반기 1000명 시험 예정
※전남차 9급행정직 109명 8월 8일 시험

개강 7월 9일 주야반모집 (현재 예약 접수중)

= 無等은 선배 公務員들이 입증하는 높은 합격률이 있습니다. =

시험명: **무등고시학원** (공인초급후원)

www.mdgosi.co.kr ☎ 222-4560

79급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www.hanbitgosi.co.kr

79급 공무원

개강 8월 1일

전남대 후문 북구청 건너편 ☎234-0234 (전직종 첫전도=사면(약)접수중)